

서울 여행의 대세는 한양도성

글. 한 철 CBS 디지털 콘텐츠국 플랫폼 개발부

한양도성 복원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12년 서울시는 관광 자원 활용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한양도성도감을 신설하고 한양도성의 역사성을 온전히 보존하여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전승하기 위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존, 관리, 활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최근 역사 도시 서울의 상징인 한양도성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멸실 구간이 많으며 현재도 복원작업 중이다. 600년 조선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한양도성의 가치를 설명해 드리고 아직도 한양도성에 방문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일부 구간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다음은 가장 최근에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된 백악 구간의 이야기이다.

600년 전 한양 도시구조

한양도성은 백악 구간, 낙산 구간, 목멱 구간 그리고 인왕 구간까지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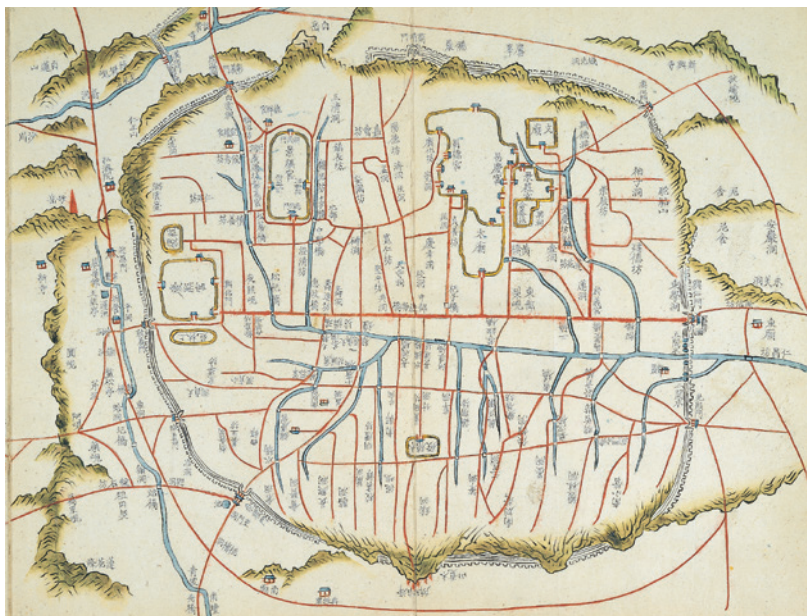


그림 1. <동여도> 작자 미상,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판각하기 위해 제작한 선행지도로 추측된다.

4구간으로 전체 길이가 59,500척(18.627km)의 문화유적이다.

태조 이성계는 1392년 조선을 건국한 후 바로 천도계획을 세운다. 그도 그럴 것이 개성은 최영과 정몽주를 제거한 공간이며 기존 보수세력이 존재하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계룡산 인근 신도안 지역에 궁궐을 짓기 시작했으나 1393년 태조 이성계의 측근이었던 하륜이 강력히 반대한다. 이유는 한나라의 수도가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었다.

1394년 태조 3년에 고려 시대의 남경이었던 한양으로 수도의 위치를 변경하게 된다. 실록에 의하면 한양은 산과 하천의 형세가 빼어남을 옛날부터 높이 평가받아왔고 사방으로 닿는 도리가 균등하고 배와 수레가 통하는 곳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렇게 수도의 위치를 정한 태조 이성계는 궁궐이 완성되기 전 천도를 명하고 1394년 10월 28일에 무작정 서울로 들어온다. 현재 서울 시민의 날이 10월 28인 것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천도 후 종묘와 사직을 건설하고 궁궐을 건설하고 도성을 건설하게 된다.

이러한 도시 설계의 기준은 무엇이였을까? 한 나라의 수도를 아무 기준 없이 건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주례라는 책이 참고서적으로 사용된다. 주례(周禮)라는 책은 주나라(BC113)부터 명나라(AD1662) 때까지 지어진 책인데 이 중 6번째 책인 고공기(考工記)라는 책은 수공업 생산기



그림 2. 한양도성 순성길 6개 구간

술, 생산 관리제도, 도시건설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술 백과사전류의 책이다. 이는 중국 역대 왕조의 도성 건설에 기본이 되었고 조선도 한성(漢城)의 건설에 기본으로 하였다. 주례 고공기는 도로를 격자형으로 설계하고, 전 조후시, 좌묘우사, 전조후침과 같은 대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한성의 정서 쪽 돈의문에서 정동 쪽 홍인지문까지 큰 도로를 만들게 되는데 그 도로가 지금의 종로이다. 설계 당시의 폭도 지금과 거의 같은 22m 정도였다. 다음으로 조선의 유교적 개념을 담은 종묘와 사직을 건설한다. 종묘는 조정의 신주를 봉안하여 백성들의 효성과 공격의 기풍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다음으로 법궁인 경복궁을 건설하고 도성을 건설하게 하는데 도성의 문도 유교의 4단(인, 의, 예, 지)의 개념으로 이름을 짓게 된다. 정동 방향에 인에 해당하는 홍인지문, 정서 방향에 의에 해당하는 돈의문, 정남 방향에 예에 해당하는 숭례문, 정북 방향에 지에 해당하는 숙정문이어야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지와 같은 의미인 정으로 바꾸어 숙정문이라 명명하였다.

이렇게 4방위의 도성 문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 중간에 간문을 설치하게 되는데 정북 숙정문에서

정동 홍인지문 사이에 동소문이라 불리웠던 혜화문, 홍인지문과 정남 숭례문 사이에 수구문이라 불리웠던 광희문, 숭례문과 정서 돈의문 사이에 서소문이라 많이 알고 있는 소의문을 만들고 돈의문과 정북 숙정문 사이에 창의를문을 두었다.

[그림 2]같이 도성 8개 문을 많은 사람은 사대문과 사소문으로 나누어 부르고 있다. 하지만 공식 문헌을 살펴보면 조선 왕조가 도성 성문을 8개로 인식하기는 했지만, 사대문과 사소문의 용례가 적고 실체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선 시대 연구자인 홍순민 명지대 교수는 서울역사편찬원이 펴내는 학술지의 최신희 논문을 통해 조선 전체의 기록을 봐도 대문, 소문의 개념은 없기에 사대문과 사소문이라 명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문도 동대문, 남대문을 제외한 다른 문을 대문으로 명시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문(正門)과 간문(間門)이라는 개념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한양 도성을 소개하는 이 글에서는 한양 성곽길 전체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기보다 한성의 주산인 백악을 중심으로 창의문에서 백악정상을 거쳐 청운대, 곡장, 숙정문까지의 경로와 주변 경관 및 문화유산을 소개하려고 한다. 나머지 구간과 주변 문화유산에 대해 더 관심이 생긴다면 이 글 마지막에 참고로 추가한 해설 답사 링크 정보와 참조 문헌 등을 보실 수 있다.

창의문

창의문의 뜻은 “올바른 것을 드러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자하문[그림 3]이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

창의문의 역사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인조반정군이 근처 세검정에서 모여 진입했던 문이라는 것이다. 그다음 해 공신 책정과 여러 가지 불만을 이유로 이괄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이괄 군이 진입했던 곳이며 가장 최근에는 1968년 1월 21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 경찰국 특수부대 31명이 창의문 검문소를 통과하여 청와대 담장까지 침투했던 기록도 있다.

창의문 밖에서 만나는 첫 번째 동네가 부암동이다. 부암동이란 동네 이름은 원래 부침바위가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인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집채만 한 부침바위가 지금의 자하문 터널 위쪽에 있었다고 한다. 작은 돌을 부침바위에 문지르다 붙으면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또한 부암동은 메주가마골로 불렸던 마을이었다. 조선 시대 이 부근 서민들의 삶은 궁핍했고 국가가 백성들을 살 수 있도록 공동으로 메주를 만들어 관에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고 한다. 이는 마치 성균관 옆 반촌에 도축전매권을 주어 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준 것과 비슷한



그림 3. 창의문 전경

에이다. 또한 부암동에는 도성에서 바라볼 수 있는 뛰어난 생활유적이 남아있는데 바로 석파정[그림 4]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홍선대원군의 별서(別墅)터로 알고 있다. 하지만 원래 주인은 김홍근이라는 분의 집이었다. 김홍근은 철종 때 영의정까지 지낸 세도정치의 마지막 인물이었다. 그 당시 삼계동에 위치한 이곳을 삼계동 정사라고 불렀는데 정사책은 아니지만 매천 황현의 매천야록에 소유권이 김홍근에서 홍선대원군으로 넘어간 내용이 남아있다. 처음에는 홍선대원군이 김홍근에게 삼계동 정사를 팔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세도정치기의 세력가였던 김홍근이 팔 리가 없었다. 이에 홍선대원군은 아내의 병간호를 위해 하루 기거할 것을 요청하고 이때 고종



그림 4. 인왕산 동쪽 계곡 한쪽에 자리 잡은 석파정



그림 5. 축성시기별 성벽의 변화



그림 6. 백악 구간의 가파른 성벽

을 데려가 같이 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이후 김홍근은 임금이 거하던 공간에 어찌 신하인 자신이 있을 수 있겠냐며 다시는 발길을 들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있다. 아주 신사적인 표현이지만 웬지 지는 해 김홍근이 뜨는 태양 홍선대원군에게 느꼈을 정치적 위압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대목이다.

도성의 의미

태조실록에 의하면 도성은 엄내외(嚴內外) 하기 위해 쌓았다고 한다. 즉 안팎을 구별하기 위해 쌓은 것이다. 좁은 의미로는 내사산의 자연적인 경계에 인공적인 건축물을 추가한 것으로 성안은 구별되고 보호받는 공간이며 임금을 대표로 하는 권력을 지키는 시설물인 것이었다. 외적을 방어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역 내란에 대비하고 치안을 확립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

조선 시대 도성의 축조 및 수축 시기는 크게 태조, 세종, 숙종, 순조 시기로 볼 수 있다. 태조 때에는 농한기를 이용 49일간 2차례 연인원 약 20만 명을 동원해 건설하였다. 대부분 자연의

돌을 거칠게 다듬어서 축조하였고 전체 성곽 중 30% 정도가 석성 70%는 토성이었다. 세종 때는 기단석 위에 좀 더 작은 돌을 다듬어 수축하였고 임진왜란 후 숙종 때부터는 직업 군인들에 의해 관리되면서 40cm~45cm의 정방형 돌을 이용하였다. 순조 때는 돌을 다루는 기술이 발전해 60cm 이상의 돌을 이용하여 수축하였다.

신영동, 평창동, 세검정의 역사

비봉-세검정을 지나 홍지문 옆 오간수문을 통해 홍제원을 지나는 물길을 홍제천으로 불렀고, 홍제천이 남가좌동을 지나 천변에 모래가 많이 쓸려 내려와 사천 또는 모래내라고 불렀다.

맑은 모래내에 가재가 많이 살아 가재울이라고 불렸으며 이 이름이 가좌동의 유래가 된다.

원래 사직 근처 삼청동에 있던 충용청이 자문 밖으로 나와 세검정 일대에 자리 잡으며 새로운 군영의 의미로 근처 동네의 이름이 신영동이 되었다. 신영동 근처에 충용청 2만 군사의 군량미를 보관하던 창고를 평창이라 했는데 이는 지금의 평창동이 되었다.

자문 밖 문화유산은 세검정을 중심으로 부암동, 신영동, 평창동, 홍지동, 구기동 등 여러 곳에 있는데 세검정을 제외하고 장의사터(당간지주), 조지서터, 충용청터, 탕춘대터 등 모두 길가의 표지석만 남아있다. 부암동에서와 같은 생활유적은 남아있지 않은데 충용청이 있던 군사 지역이기 때문이다. 세검정은 성종 때와 연산군 때의 짧은 기록은 존재하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궁궐지에 나오는 세검입지의 내용이다. 즉, 인조반정을 주도한 이괄, 김류 등 반정인사들이 이곳에 모여 칼을 씻으며 정의를 세웠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지금의 세검정은 1977년 복원한 것으로 영조 때 세운 정자의 모습을 겸재 정선의 세검정도를 참고하여 재건한 것이다.

현대 한양도성 복원의 시작

현대에 들어와 한양도성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그림 7. 한양도성에서 바라본 북한산 일대

계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서다. 1968년 우리나라를 충격에 휩싸이게 한 사건이 발생한다. 1968년 1월 21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 정찰국의 124부대 소속 31명이 남침을 한 것이다. 창의문 검문소를 통과하여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정체가 드러나자 수류탄과 기관총을 쏘면서 저항한 사건이다.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지휘하던 종로 경찰서장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가 총탄에 맞아 사망하였고 124부대 소속 31명 중 29명이 사살되고 김신조는 투항, 한명은 도주하여 북으로 넘어갔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양도성을 방어에 중요한 시설물임을 인식하게 되고 대대적인 보수작업에 들어간다. 1·21 사태는 한양도성의 복원작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끌어냈다.

1·21 사건이 발생한 2일 후 1월 23일에 푸에블로호 사건이 발생한다. 미군 정보함이 북한에 나포된 사건으로 단순 군함 1척이 아니라 미군 암호 체계가 모두 노출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미국은 UN 안보리를 즉각 소집한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에서는 우리의 1·21 사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본인들의 사건에만 관심을 보였기에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겠다는 의식이 생긴 것 같다. 그 이후 국가안보 우선주의를 선언하고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주민등록증이 1·21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향토예비군, 육군 3사관학교 창설, 교련부화, 군 복무 연장, 5분 대기조, 유격훈련 등이 생긴 것도 이 여파였다. 물론 청와대 주변 삼청동, 성북동, 청운동, 부암동 일대가 전면 통제된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1·21 사건이 발생한 그해 1968년 9월, 10월에 북악스카이웨이와 인왕스카이웨이를 건설하고 요새, 지하화의 목적으로 1970년 남산 1호 터널과 삼청 터널 등의 건설도 진행된다. 이후 남산 1호터널 공사를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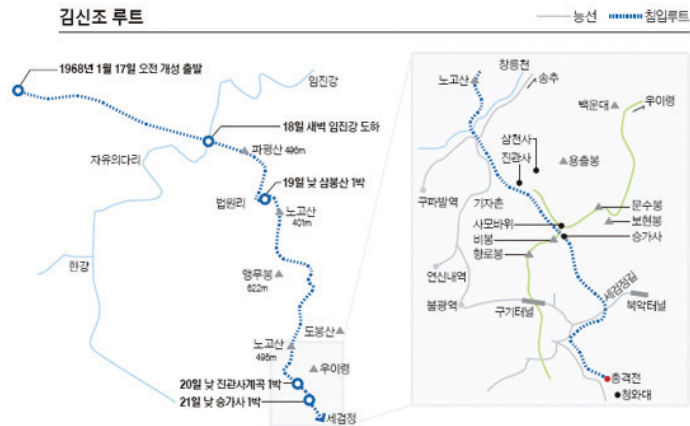


그림 8. 김신조 루트

관한 한신부동산(한국신탁은행의 전신)은 평창동 개발권을 부여받게 되고 삼청터널의 공사를 맡은 대교산업(대한교육보험)측은 성북동 개발권을 부여받게 된다. 1·21 사태는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 엄청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청운대



그림 9. 청운대에서 보였을 광화문 광장(모형)

지금의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6조 거리는 조선 시대에는 관청들이 있던 곳으로 광화문 좌측에는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 우측에는 예조, 사헌부, 병조, 형조, 공조 등이 있던 곳이다. 이 관청은 궁궐 안에서 임금을 보필하는 궐내각사에 전주어 궐외각사라 하였다.

숙정문

한양도성은 방위별로 4개의 문을 만들고 중간에 간문을 지었는데 숙정문[그림 10]은 유교의 4단(인, 의, 예, 지) 중 지에 해당하는 복문이다. 태종 때 풍수학자 최양선의 건의로 숙정문과 창의문에 폐쇄되고 출입을 못 하도록 주변에 소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출입을 위한 문이 아니었다는 것은 주변에 길이 없음을 보고 알 수 있다. 숙정문은 음양오행 가운데 물을 상징하는 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라에 가뭄이 들



그림 10. 숙정문

때 승례문을 닫고 숙정문을 열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현재의 숙정문 문루는 1976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에 새로 지어진 건물인데 이 복원은 아직도 많은 역사학자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주제이다. 문장에 총안이 있는가 하면 홍예의 모습이 놀린 모습, 현판의 글자 방향 등에서 복원의 오류가 있다는 주장과 그 자체도 역사적인 의미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맺음말

한양도성의 여행 코스 중 하나인 백악 구간, 그 중에서도 일부만을 소개하였다. 십 분의 일도 소개해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나머지 감동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느껴 보시길 권유 드린다. 서울에서 태어나 복잡한 현대사의 현장에 본인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한양도성을 둘러보며 서울에 대해 너무 무지했음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을 알고 싶은 분이라면 한양도성 순성길을 다시 한번 강력히 추천해 드린다. 필자가 느꼈던 감동을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도 느끼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여 링크

- 서울특별시 무료 정기해설 예약 사이트 yeyak.seoul.go.kr/reservation/view.web?rsvsvcid=S180302181125089970
- 종로구 테마여행 tour.jongno.go.kr/tour/main/contents.do?menuNo=110428

참조 문헌

- 홍순민의 한양 읽기 도성 - 홍순민 (놀아)
-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 서울편 - 유홍준(창비)
- 한양도성 박물관 자료